

글로벌 은행들의 블록체인 기반 청산·결제코인 개발현황

이은재 (3705-6226)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가상화폐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UBS가 주도하는 청산·결제코인(USC) 개발에 글로벌 은행들이 추가 참여

○ 지난 8월말 Barclays, HSBC, CIBC, Credit Suisse, HSBC, MUFG, State Street 등 6개 은행들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유틸리티 결제코인*(USC, Utility Settlement Coin)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결정

* 은행권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컨소시엄 중 하나. '15년 9월 UBS가 IT스타트업 Clearmatics Technologies와 협력하여 개발을 제안한 이후 Deutsche Bank, Santander, BNY Mellon과 NEX group(구 ICAP) 등이 참여

○ Clearmatics社 솔루션 기반의 USC는 금융기관 간에 채권·주식 매매 등을 포함한 자금거래 후 결제·청산 시 화폐를 대체할 법인용 디지털 코인이며 각국 중앙은행에서 달러화, 유로화 등 실제 화폐(fiat currency)와 일대일로 직접 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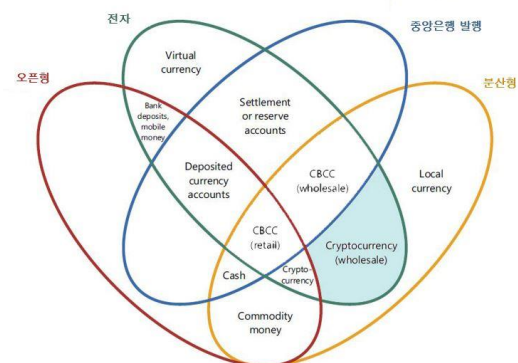
- BIS 화폐 분류*에 의하면 USC는 민간이 발행하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법인용 전자화폐

* 9/17일 보고서에서 화폐를 크게 ①발행자(중앙은행/기타), ②형태(전자/실제), ③접근성(오픈형/제한형) ④교환 메커니즘(중앙집중/분산)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그림 참고)

- 동 컨소시엄은 향후 USC 사용을 통해 ①전통적 실물화폐 송금시 소요되던 대기시간(T+2)이 단축되고, ②총액 결제시스템(RTGS) 등 기존 시스템 대비 결제유동성 및 수수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③거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

*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22년까지 관련 백오피스 비용을 \$150-200억 가량, 또는 50% 절감 가능(Oliver Wyman, MainleandMilne, BIS)

〈그림〉 화폐의 분류("The money flower")



참고: USC(민간이 발행하는 법인용 가상화폐)는 음영처리
자료: BIS

○ USC는 내년말 상용화를 목표로 총 4단계로 개발 진행 중이며 ▲1단계: USC개념 및 구조 확립(15년 8월)→ ▲2단계: 법적인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정립, 중앙은행 및 규제기관과 협의(16년 말)→ ▲3단계: 1년동안 은행간 시범거래 실시(17년 하반기)→ ▲4단계(18년말) 상용화순

- 다만 최근까지 USC의 기술적인 내용 공개는 배제되고 네트워크 확대만이 강조되는 상황(FT)

□ 일각에서는 USC의 한계점을 거론하면서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을 강조

○ Citi(CitiCoin), Goldman Sachs(SETLcoin) 등 글로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개발 중인 가운데 다양한 기술들의 난립으로 거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FT)

○ USC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가상화폐가 아니며 IMF 회원국의 준비통화인 SDR과 같은 맥락의 자산담보부 디지털증권에 불과(Asset-backed digital security) (Bitcoin foundation)

○ 향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CBCC,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를 직접 발행할 경우 은행들의 중앙은행 예금을 담보로 거래될 USC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 이에 대해 UBS의 핀테크 개발책임자 Hyder Jaffrey는 CBCC의 등장에 따른 USC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CBCC가 등장하기까지 5~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이 기간 중 USC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USC와 실제 화폐와의 일대일 매칭을 보증하는 별도의 중립적인 비영리기관 운영이 불가피하며 은행들은 해당 특수목적회사(SPV)를 회계적으로 이용할 소지(FT)

- 저수익성의 비영업적 예금을 특수목적법인에 넘겨 자본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부외 자산거래(Off-balance sheet)를 이용할 소지

□ [시사점]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하면서 분야별 적용기술이 상충될 가능성. 표준화 동향과 규제기관 협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

○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 인증, ▲국가간 송금, ▲결제·청산 등 수백 개에 달하는 은행 서비스 관련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기술 표준화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여부를 점검할 필요

- '18~'24년은 금융권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의 성장기로, 초기 수용자들(early adopter)에 의해 블록체인 시스템의 효과가 발휘되고 감독당국과의 협업에 의해 시스템의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어 '25년 이후 블록체인 시스템이 주류로 자리매김할 전망(Accentur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5 혹은 ejlee@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